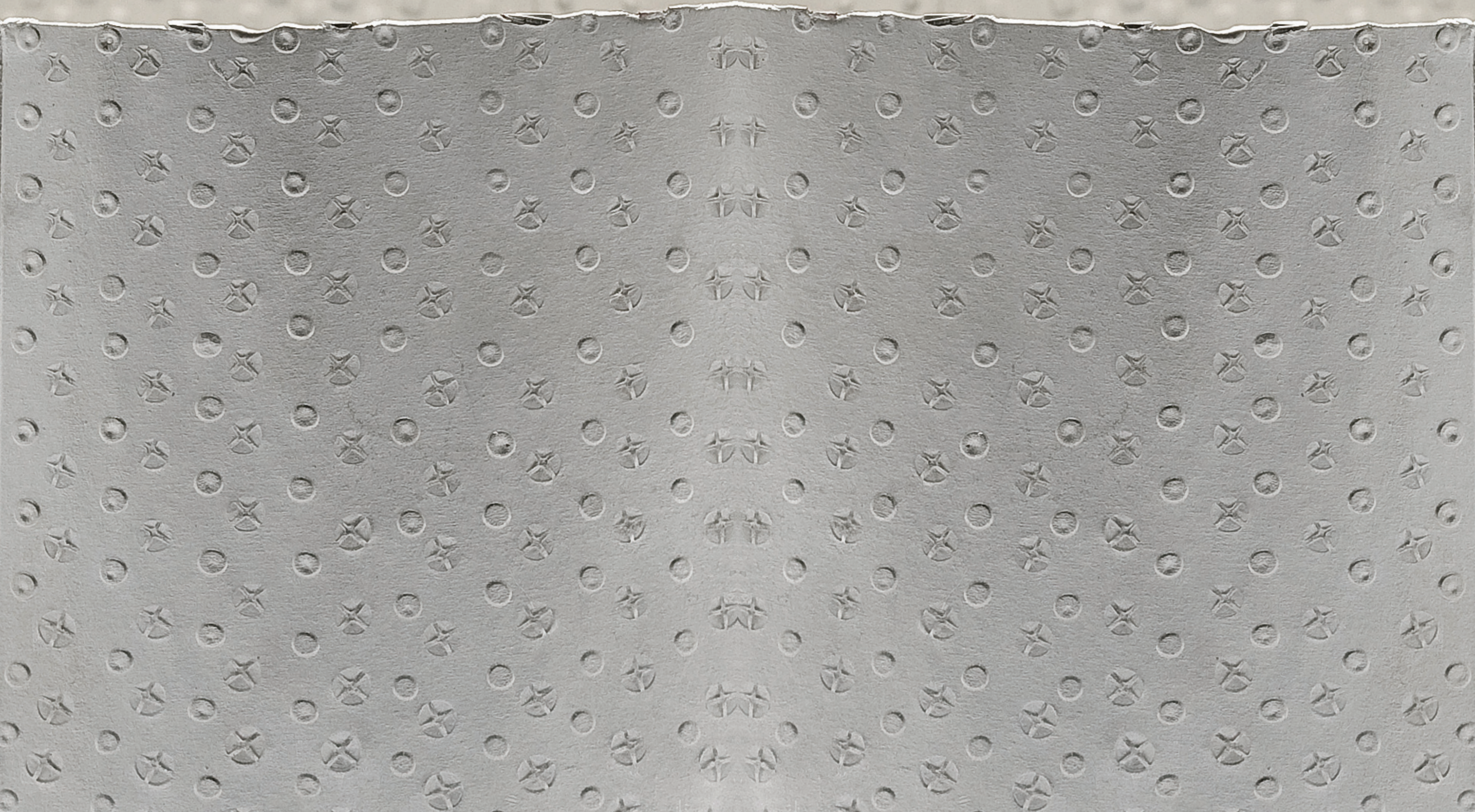


transition of traces

흔적의 전이 | 조성호

Solo Exhibition SUNGHO CHO





Transition of traces 흔적의 전이 19-2
Ø15×17.5cm Silver 925 2019



Transition of traces 흔적의 전이 19-3
Ø15×9.5cm Silver 925 2019

금속공예 작업은 지난한 노력과 시간의 결실이다. 주조기법은 모형이 마련된 상태라면 빠르게 완성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불타서 사라지는 소재라면 어떤 것이든 주조가 가능하다. 풍부한 양감과 섬세한 질감 표현도 우수하다. 또한 연금술사 마냥 여러 종류의 합금을 제조해 주조에 대입할 수도 있다. 계란의 노른자처럼 도가니 속 금속 쇠물은 유영하듯 움직이는 꼴이 꽤나 환상적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탕도로 빨려드는 쇠물의 움직임은 가히 매력적이다. 찬물에 담그면 이내 폭발할 듯 반응하는 플라스크로부터 두려운 호기심이 끓어오른다. 성공을 고대하며 온갖 신경을 집중한 채 물속을 훑는 손에는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 설렘도 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주물은 일반적으로 두껍고 무겁다는 것이다. 장점은 고스란히 유지면서 얇고 가벼우며 섬세하기까지 한 기물을 주조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Metalsmithing is the fruit of great effort and time. Casting technique has been widely used because if you have a casting model, you can execute a work very fast. And in casting, any combustible material can be used. Being able to express ample sense of volume and delicate texture is another advantage of casting. Also, like an alchemist, you can process different types of alloys and apply to casting. The way molten metal moves in a crucible like egg yolk is quite fascinating to look at. And

so is the movement of molten metal that flows into a ring gate in an instant. Curiosity and fright arise at the same time from the flask reacting explosively in cold water. When concentrating the nerves of two hands to look through the water for a successful work, you get a hint of excitement as if in treasure hunting.

An unfortunate thing about casting is that it generally produces thick and heavy works. Would it be really impossible to cast an object that maintains the advantages of casting, yet is thin, lightweighted, and delicate?



Transition of traces 흔적의 전이 19-B1 Ø20×15cm Brass, Gold Plating 2019



Transition of material expressions 물성의 전이 19-1
Ø17.5×15cm Silver 925 2019



Transition of material expressions 물성의 전이 19-2
Ø12.5×9.5cm Silver 925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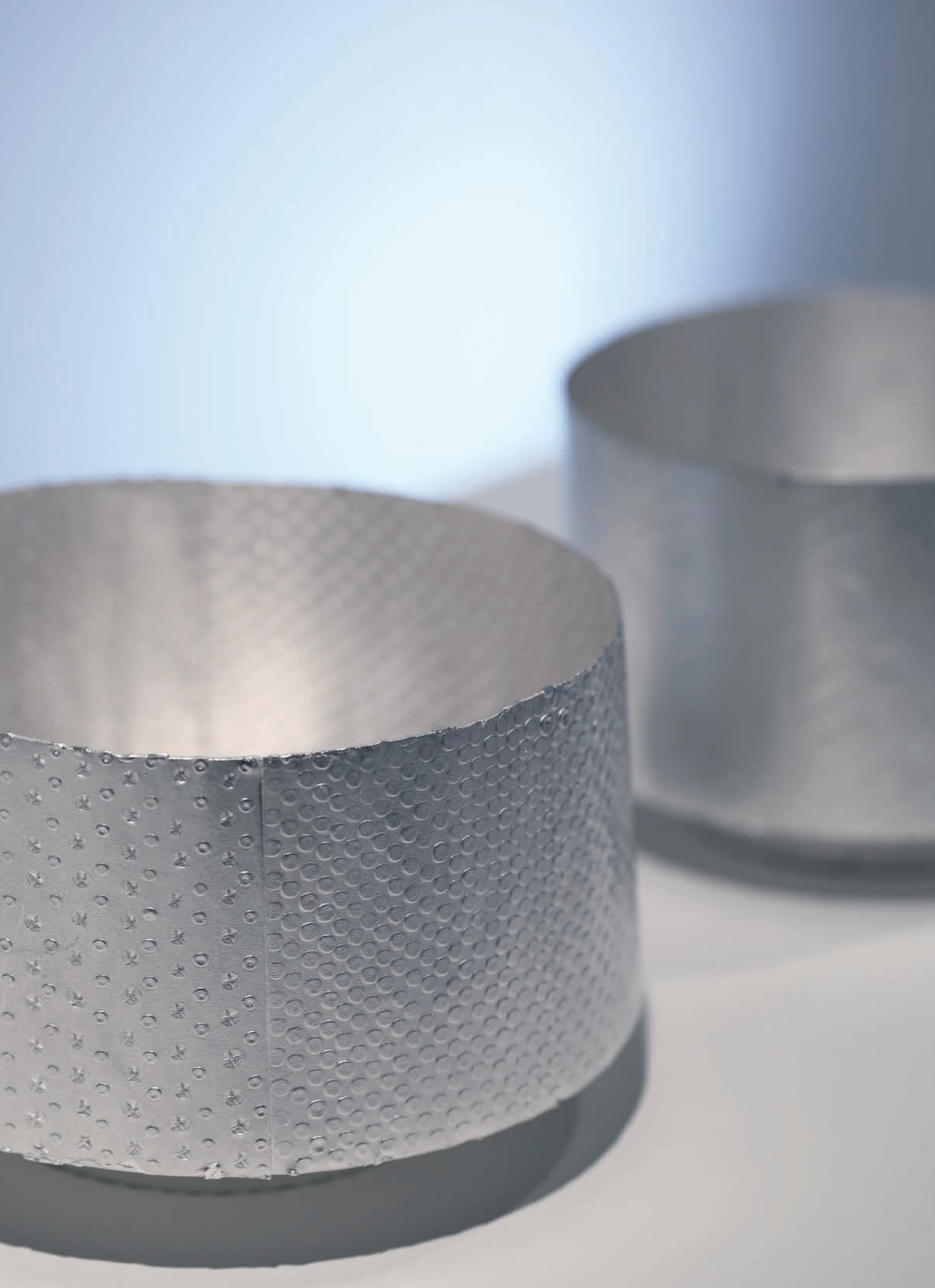
Composition of textures 질감의 연구성 21-1
Ø15.5×15cm Silver 925 2021



Melt-drawing 열선 드로잉 19-1
23.5×14×9.5cm Silver 925 2019

Composition of textures 질감의 연구성 19-1
Ø15.5×17cm Silver 925 2019





Transition of material expressions 물성의 전이 19-3
15.5×9×7.5cm Silver 925 2019

장식은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시각적 유희 수단이다. 심적 위안을 선사하는 반복적 손놀림의 기록이 보는 이에게로 자연스럽게 전해지길 희망하며 은기의 얇은 벽면을 요철 무늬로 촘촘히 채운다. 감각적 체험뿐 아니라 적층된 세월의 기억까지 고스란히 반영된다. 시간의 흔적을 기벽에 담고, 오늘의 삶을 그 안에 담는 유백색 그릇은 이렇게 생겨났다. 빛과 그늘이 제공하는 음영으로 형태를 관찰하고, 고요한 접촉으로 형태로 전환된 시간을 이해하기 바란다.

Ornamentation is a playful visual mean to pursue primitive and sensual pleasure. The silverware's thin wall is filled with bumpy patterns, in the hope that the record of hand movements naturally soothes the viewers. The bumpy pattern reflects not only sensory experiences but also memories of stacked years. As the traces of time fills the silverware's wall, the white opaque bowl also contains the life today. By observing the shape with light and shade, viewers may understand the shape of time through serenity.



Transition of traces 흔적의 전이 20-1
Ø20 × 15cm Silver 925 2020



Transition of traces 흔적의 전이 20-2
17 × 14.5 × 17cm Silver 925 2020



Transition of traces 흔적의 전이 20-3
14.5 × 13 × 17cm Silver 925 2020



Transition of traces 흔적의 전이 19-B2
Ø15.5×10cm Brass, Tin Plating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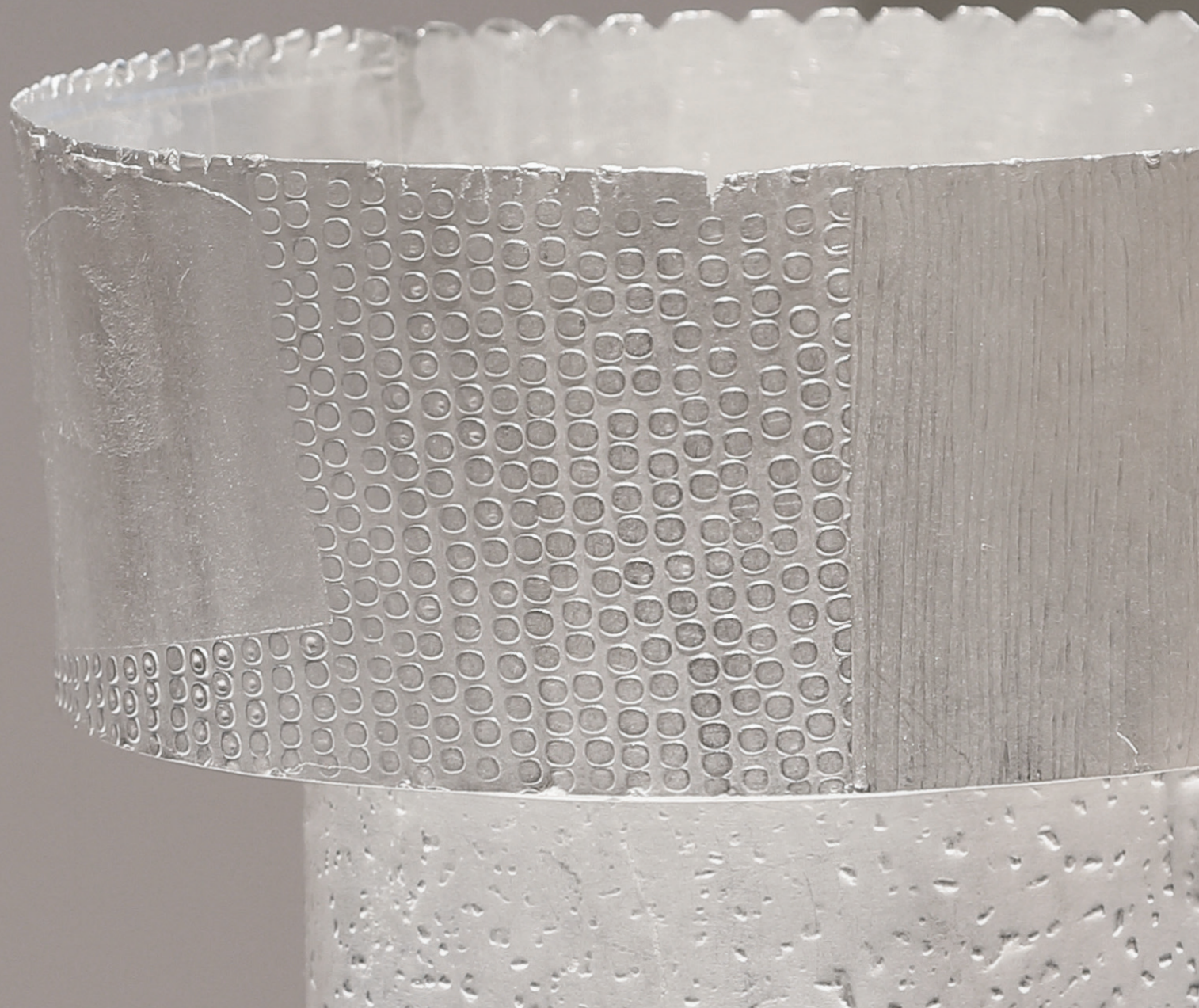


Transition of traces 흔적의 전이 19-1 20×17.5×13.5cm Silver 925 2019



불타 사라지는 무엇이나 주조가 된다. 녹아서 하나 된 쇠물의 움직임이 가히 매력적이다. 폭발하듯 포효하는 플라스크에 동해 호기심이 끓어오른다. 보물찾기의 설렘이 물속을 훑는 손끝에 깃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아쉬운 한 가지, 얇고 가벼운 주물은 기대할 수 없는가? 은기의 얇은 벽면을 요철 무늬로 촘촘히 채운다. 감각적 체험뿐 아니라 적층된 세월의 기억까지 고스란히 반영된다. 시간의 흔적을 기벽에 담고, 오늘의 삶을 그 안에 담는 유백색 그릇은 이렇게 생겨났다. 빛과 그늘이 만든 음영으로 형태를 관찰하고, 고요한 접촉으로 형태로 전환된 시간을 이해하기 바란다.

Metalwork is the fruit of great effort and time. Casting technique has been widely used because if you have a casting model, you can execute a work very fast. And in casting, any combustible material can be used. Being able to express ample sense of volume and delicate texture is another advantage of casting. Also, like an alchemist, you can process different types of alloys and apply to casting. The way molten metal moves in a crucible like egg yolk is quite fascinating to look at. And so is the movement of molten metal that flows into a mold in an instant. Curiosity and fright arise at the same time from the flask reacting explosively in cold water. When concentrating the nerves of two hands to look through the water for a successful work, you get a hint of excitement as if in treasure hunting. An unfortunate thing about casting is that it generally produces thick and heavy works. Would it be really impossible to cast an object that maintains the advantages of casting, yet is thin, light weighted, and delicate?



Melt-drawing 열선 드로잉 21-1 19.5×17.5×16cm Silver 925 2021



Melt-drawing 열선 드로잉 20-2
17.5×9×7.5cm Silver 925 2020



Melt-drawing 열선 드로잉 20-1
22 × 19 × 12.5cm Silver 925 2020



Melt-drawing 열선 드로잉 19-2 8×6×10cm Silver 925 2019

Composition of textures 질감의 연구성 20-2
21.5 × 17.5 × 12cm Silver 925 2020





Composition of textures 질감의 연구성 20-1
Ø13.5 × 11cm Silver 925 2020



Composition of textures 질감의 연구성 19-2
Ø14.5 × 14.5cm Silver 925 2019



Transition of material expressions 물성의 전이 19-4
20 × 8.5 × 7.5cm Silver 925 2019

시간의 채집 Collection of Time

1. 시간의 축적과 질감의 형성

탁본(拓本)은 금석이나 기타 물체에 조각된 문자나 문양 등을 종이에 모인(冒認)하는 일이나 모인한 복사물을 뜻한다.¹⁾ 비면에 종이를 대고 직접 두드려 떠내는 원석탁본(原石拓本)은 비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방식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마모, 재발견 후 이끼 제거 등으로 글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흐려져 의미를 잃어내기 매우 어렵다.²⁾ 그러나 비문의 뜻 분석과는 별개로 세월의 풍파에 의한 온갖 흔적이 탁본에 그대로 옮겨진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탁본처럼 나무나 돌의 표면 등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결과 무늬를 찍어내 예상치 못한 효과를 얻는 기법이 미술에도 있다. '문지르다'는 뜻의 프랑스 단어 '프로테(frotter)'에서 파생된 프로타주(frottage)는 물체의 표면에 종이를 대고 목탄, 콘테, 흑연 또는 크레용 등으로 문질러 회화적 효과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이다.

프로타주는 독일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에 의해 창시됐다. 에른스트는 세월에 닳아 결이 뚜렷해진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영감을 얻어 종이를 놓고 부드러운 연필로 문질러 생경한 이미지를 채집했다.³⁾ 그는 프로타주 기법으로 만든 무늬와 질감에서 낯선 이미지를 자유롭게 연상해 작품에 은유적으로 사용하였다. 1929년작 〈Petrified Forest〉는 에른스트가 자신의 내적 환상을 프로타주



[그림 1] Max Ernst, 〈Petrified Forest〉, 1929, Georges Pompidou Center

에 의한 질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촉각적 조형성을 화면에 담은 작품이다.

프로타주는 드로잉, 판화, 조각의 장르별 특성을 모두 갖추면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작업 과정을 통해,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지 못하나 작업자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로 재료에 의한 모사가 이뤄진다. 물체의 고유한 특징을 섬세하게 포착해 시각화한 프로타주 결과물은 촉각적 자극을 동반한다.

탁본과 프로타주와 유사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 없는 물체의 질감을 판형 왁스의 표면에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림 2] 탁본을 통한 질감 옮기기

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0347&cid=46658&categoryId=46658>

2)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254462>

3)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A1%9C%ED%83%80%EC%A3%BC>

2. 흔적의 수집



[그림 3] Lin Cheung, <Papaver Argentum>, 2009, Bronze, Silver, Gold, Polymer Plastic

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린청(Lin Cheung)은 런던의 건물들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총상의 흔적들을 모인해 장신구로 제작하고, 작품 제목을 <은 양귀비(Papaver Argentum)>⁴⁾라 명명하였다. 건물이 지어진 시기와 벽에 사용된 돌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흔적들은 희미하나 미묘한 것부터 대담하기까지 한 윤곽을 가짐으로써 저마다 독특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건물을 상하게 할 염려가 없는 폴리머 클레이(polymer clay)⁵⁾를 사용해 여러 장소들에서 탄흔을 모인하였다. 그런 다음에 은과 청동으로 주조해 브로치로 제작하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기억과 평화에 대한 예술가의 반응이라고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였다.⁶⁾

동양화가 정희우도 탁본을 통해 린청과 유사한 콘셉트의 작업을 제작하였다. 그는 2000년 착공해 2006년에 폐쇄된 개성공단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고, <경(境)-정희우전>을 구상하였다.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임을 무색하게 하는 '개성'이라는 글씨와 화살표 방향 표시에 그곳에 가서 글씨를 만져 보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고 한다.⁷⁾



[그림 4] V&A Museum, Exhibition Road, London

“먹을 문힌 솜방망이로 두드려서 바닥의 글씨를 그대로 벗겨낸 한 장의 커다란 탁본에는 사진이나 그림이 재현하지 못한 것들이 불려와 있다. 그림에 다가가 미세한 균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 자국들에는 16년간 개성과 서울을 드나들던 자동차 바퀴 자국, 바람과 비, 눈과 햇빛이 만들어낸 서사가 스며들어 있다.”⁸⁾

정희우의 작업에서와 같이 종이 탁본은 먹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 흑백의 효과로서 시각적 모임을 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종이 탁본은 회화 작업처럼 평면에 기반을 둠으로써 촉각적 모임을 불가능하다. 단지 삶에서 채득한 경험을 불려내 간접적으로 그것의 분위기를 체감할 뿐이다. 그러나 판형 왁스로 옮겨 온 질감

4) 린청은 주조 결과물이 어렵듯이 꽃처럼 느껴져 작품 제목을 '은 양귀비(Papaver Argentum)'로 지었다.

5) 폴리머 폴리염화비닐(PVC)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경화 가능한 모델링 클레이.

6) <http://www.lincheung.co.uk>

7) 조현신, 「경(境)을 탁본한다는 것」, 『경(境)-정희우전』, 2016, p.14.

8) ibid.

은 손으로 직접 전해져 원본이 가진 요철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종이 탁본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반대쪽 면에서 요철의 반전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에 다양한 사연들이 표면에 각인되고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녹아든 여러 장소와 대상들을 찾아 탁본으로 옮겨오고 정밀탈납주조를 통해 금속 기물로 제작하였다. 그림으로써 기물의 기벽에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담고, 기물의 안에는 오늘의 삶을 담은 그릇을 탄생시켰다.



[그림 5] 정희우, <개성>, 2016, 한지에 먹, 290x212cm

작품 연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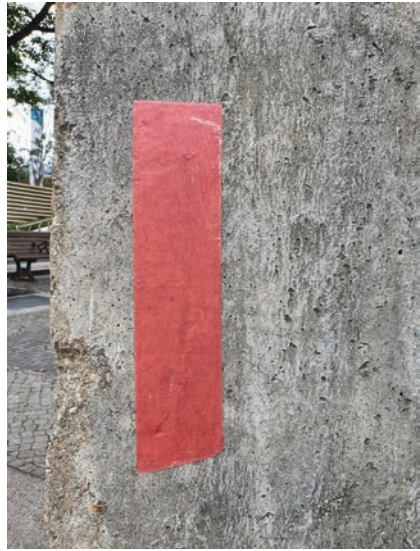
[그림 6] 베를린 장벽의 탁본

2005년 10월에 서울로 옮겨 온 베를린 장벽은 원래 1961년 동독에 설치된 것으로 동서독의 통일로 1989년 철거돼 베를린시 동부 지역에 있는 마르짠(Marzahn) 휴양공원에 전시되어 오던 것이다.⁹⁾

금속 기물의 벽과 베를린 장벽의 벽 사이에 존재하는 묘한 동질감이 있다. 전면과 후면, 안쪽과 바깥쪽 어느 것이든 간에 구분해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구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달리한 이념 탓에 기나긴 단절의 시간을 보냈다. 장벽에 각인된 서사의 시간과 숨겨진 이야기를 왁스로 채집해, 기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기면에 각인된 이야기는 과거 분단 독일의 것만이 아니다. 동독의 기억과 한국으로 오는 동안의 긴 여정은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인 여러 일들이 새겨져 있고, 앞으로도 새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9) 서울시의 베를린 광장 시설안내판.



[그림 7] 베를린 장벽(동편)



[그림 8] 베를린 장벽(서편)



[그림 9] 주조 결과, 베를린 장벽(동편)



[그림 10] 주조 결과, 베를린 장벽(서편)

서사와 채집하던 날의 날씨까지도 고스란히 왁스에 전이돼 주조 기물로서 재탄생되기를 바랐다.

베를린 장벽의 질감 채집은 오직 체온을 이용한 손동작만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므로 작업일의 날씨가 채집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림 7]과 [그림 8]은 베를린 장벽 동편과 서편의 질감을 판형 왁스에 채집하는 과정을 기록한 사진이다. 왁스로 옮겨온 질감에서 색의 간섭이 제거됨으로써, 장벽 서편이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과 달리 장벽 동편의 질감이 훨씬 촘촘하고 뚜렷했다.

바위나 콘크리트와 같은 영속성을 지니는 물체의 표면을 탁본이라는 즉흥적 행위로서 옮겨와 제작한 주조 기물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구상되었다. 기물의 전반적 형태는 벽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는데, 2개의 주물 판재를 길쭉하게 이어 붙였으나 판재와 판재가 완벽히 맞물리는 구조로 결합되지 않는다. 일정한 간격을 두거나 높이 차이를 줌으로써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시간의, 공간의, 재료의 간극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사의 어두운 단면을 감추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통으로 맞닥뜨려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꺾음을 뒤 상석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는 비석이나 기념비와 같은 조각적 자태를 가지는 기물을 제작하였다.

작품 연구 2



[그림 11] 광통교 교대석
(출처: 이대학보 <http://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17307>)

광통교(廣通橋)는 축조 당시 태조 이성계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을 이장하고 옛터에 방치해 두었던 신장석(神將石)¹⁰⁾을 교대석(橋臺石, abutment)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중 일부의 조각이 고의적으로 훼손돼 있거나 거꾸로 놓여 있다. 이 신장석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유행했던 당초 문양과 구름 문양이 세련되게 새겨져 있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예술사적 가치도 상당하다. 이런 아름다운 문양석이 거꾸로 놓여 있는 것은 조선 초기 신덕왕후와 정적 관계에 있던 태종 이방원의 의도적인 복수심 때문으로 추정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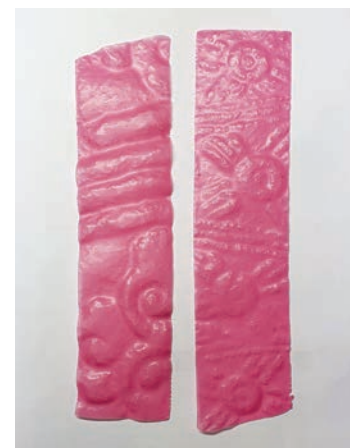
[그림 12] 광통교 교대석의 모인 작업

〈시간의 채집 20-4〉와 〈시간의 채집 21-1〉 등은 광통교 교대석을 모인해 만들었다. 고의적 훼손과 오랜 시간에 의한 풍화로 문양이 많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면의 콘크리트 구조인 베를린 장벽과 비교하면 요철이 화려하고 깊다. 깊고 화려한 문양을 온전히 옮겨 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최초 굴곡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조와 성형 과정에서 세심히 주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석물의 질감, 요철이 조합의 방식뿐 아니라 기물의 표면과 전체 형태에까지 영향을 준 사례이다.

또한 〈시간의 채집 20-4〉는 볼륨감이 있는 볼(bowl) 형태를 바닥면으로 시도한 작품이다. 먼저 제작된 원통의 굴곡과 볼의 가장자리 단면을 일일이 맞춰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었다. 공정의 어려움보다 상부의 자연적 질감과 하부의 인공적 질감 간의 부조화가 염려되어 시도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도전을 감행했다. 전체 분위기에 어울리는 볼의 깊이를 세심히 계산해 결정했고, 직선과 곡선, 상하부의 질감 대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이상의 연구 작품은 실제 사물만 담는 그릇이 아니다. 무형의 시간과 기억의 잔상도 함께 담긴다. 역사적 사건, 인간의 감정 등 무엇이든 가능하다. 복수심에 둘러놓았던 신장석을 당장 되돌려 놓을 수는 없지만, 그 흔적을 옮겨온 기물에서는 되돌리는 일이 가능하다.

『정밀탈납주조 금속 판재를 활용한 기물 제작 연구』의 일부



[그림 13] 광통교 교대석을 모인한 판형 왁스

10) 무덤을 수호하는 돌

11) 서울시의 광통교 시설안내판



Collection of time 시간의 채집 20-1
26.5 × 10 × 18.5cm Silver 925 2020



Collection of time 20-3 27×9×9.5cm Silver 925 2020

Collection of time 시간의 채집 20-2 31 × 11 × 10cm Silver 925 2020





Collection of time 시간의 채집 20-4 16.5×14×10.5cm Silver 925 2020



Collection of time 시간의 채집 20-5 15×12×10cm Silver 925 2020





Collection of time 시간의 채집 21-1
Ø18.5×10.5cm Silver 925 2021



Collection of time 시간의 채집 21-2
Ø11 × 15cm Silver 925 2021

• What was your inspiration for this object? How would you describe the way you work?

Investment Casting (Lost Wax Casting) is one of the most generally used casting methods for jewelry and metal forming. Vacuum casting is a type of Investment Casting that is classified as a plaster mold technique due to its molding materials. The production cost is lower than other casting methods but not suitable for the production of larger sized vessels due to the constraints that arise from equipment issues. Therefore, other casting methods are chosen rather than the vacuum casting for various vessels beyond the appropriate scale. However, vacuum casting is suitable for obtaining castings with precision and shapes that are complex. Moreover, it can easily produce a single piece of casting or even mass produce. Above all, the distribution of vacuum casting equipment is remarkably superior to other casting methods; therefore if various vessels can be produced by vacuum casting, considerable gain can be expected. It is strongly believ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in expanding the possibilities of vessel making through vacuum casting and free of technical constraints of size in casting.

Work statement or description; The bodies of the silver vessels are formed out of strips of silver sheets that are cast out of wax with my designs which were created by stamping. I wanted to make vessels that are thin and light with intriguing surfaces, which are thought out to be really difficult to produce through casting.

Work technical description; Thin strips of wax are made in different forms and are rolled up and cast with metal using the lost wax method. The silver strips then can be unrolled and used to make my vessels. Silver strips with various textures are soldered together to create various types of vessels.

• What made you to decide to take part in the Silver Triennial?

This isn't my first time participating in the Silver Triennial. I already tried and my works were selected at 15th and 18th Silver Triennial. In addition, I participated in the Schoonhoven Silver Award 2009, 2018 as well.

• You are famous for making jewelry. Why did you decide to make a bigger objec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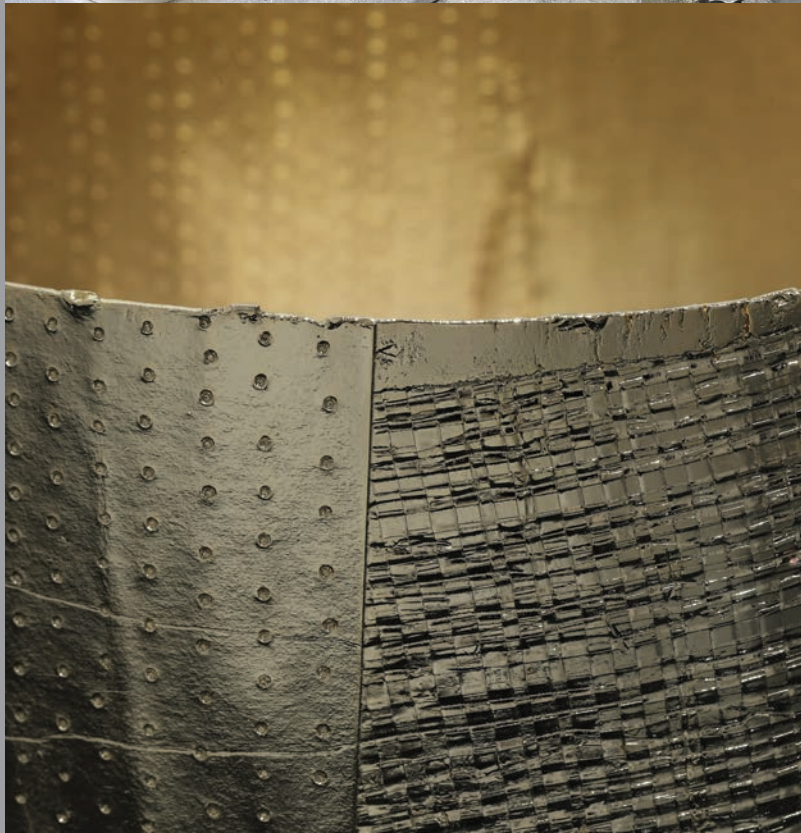
As I mentioned earlier, this is not new to me. I have been focusing on making jewelry for the past 10 years. I have such an inquisitive mind, so I plan to continue both works in the future.

- Email talk with **Leonie Maerevoet** (Assistant Curator of DIVA, Antwerp Home of Diamonds)



The bodies of the two vessels have been formed out of strips of silver sheet cast with wax according to the artist's own designs. The size and structure of these strips determines the vessels' archaic-looking appearance.

- The jury's comment in the catalogue of Silver Triennial International 2019



조 성 호
SUNGHO CHO

b. 1975, Korea
 @ sunghocho417
 sunghocho417@gmail.com

- 2021 서울대학교 박사 졸업, 서울
- 2013 원현 국립조형예술대학 졸업 / 마이스터슐러, 원현, 독일
- 2008 알키미아 졸업, 피렌체, 이탈리아
- 2005 서울대학교 석사 졸업, 서울
- 2000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

개인전

- 2021 흔적의 전이 II, 갤러리 원물, 서울
- 2019 흔적의 전이, 엘케이트 갤러리, 서울
- 2019 사람, 원숭이 그리고 외계인, Atta Gallery, 방콕, 태국
- 2018 New Beads, Galerie Rob Koudijs,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2017 Chronic Spy, 수애노339, 서울
- 2015 Humanity in the Age of Credit, Galerie Rob Koudijs,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2014 Ring - A Sign Language, 갤러리 보고재, 서울
- 2013 생명산림, 갤러리 아원, 서울
- 2013 Abstract Portraits, Galerie Rob Koudijs,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2010 Samsara, 갤러리 히든스페이스, 서울

주요 단체전

- 2021 Schmuck 2021, Klmit02.net
- 2020 100개의 브로치-한국 현대장신구 연대기, 수애노 339, 서울
- 2020 사물 속의 품위, 유리지공예관, 서울
- 2020 수집으로부터, 갤러리 밌, 서울
- 2020 Schmuck 2020, 원현국제수공예박람회, 원현, 독일
- 2019 Substantific, LA Joaillerie par Mazlo Gallery, 파리, 프랑스
- 2019 Schmuck 2019, 원현국제수공예박람회, 원현, 독일
- 2018 한국공예전_기량의 예술, 올림피아크 라이브사이트, 강릉
- 2017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재활용 플라스틱 장신구, 김현주 갤러리, 서울
- 2017 미물, Goldfingers, 코펜하겐, 덴마크
- 2016 Les_Confluences_Ramon Casas and Contemporary Jewellery, Museo del Modernismo de Barcelona, 바르셀로나, 스페인
- 2016 Open Space, Mind Maps. Positions in Contemporary Jewellery, National Museum Design at Kulturhuset Stadsteatern, 스톡홀름, 스웨덴
- 2015 지금, 한국, 파리장식미술관, 파리, 프랑스
- 2015 Schmuck 1970-2015 Sammlung Bollmann Collection, MAK-Austrian Museum of Applied Arts Contemporary Art, 빈, 오스트리아

주요 수상

- 2021 로베베공예상 2020, 파리, 프랑스
- 2021 Schmuck 2021, Klmit02.net
- 2020 Schmuck 2020, 원현, 독일
- 2019 The Robbe & Berking Award, 19회 실버트리엔날레, 하나우, 독일
- 2019 Schmuck 2019, 원현, 독일
- 2018 Schoonhoven Silver Award 2018, 슐호벤, 네덜란드
- 2018 Mari Funaki Award for Contemporary Jewellery 2018, 멜버른, 오스트레일리아
- 2014 2등상, 23회 레그니카 국제 장신구 공모전, 레그니카, 폴란드
- 2014 Schmuck 2014, 원현, 독일
- 2013 제1회 올해의 금속공예가상, 서울
- 2013 Schmuck 2013, 원현, 독일
- 2012 Schmuck 2012, 원현,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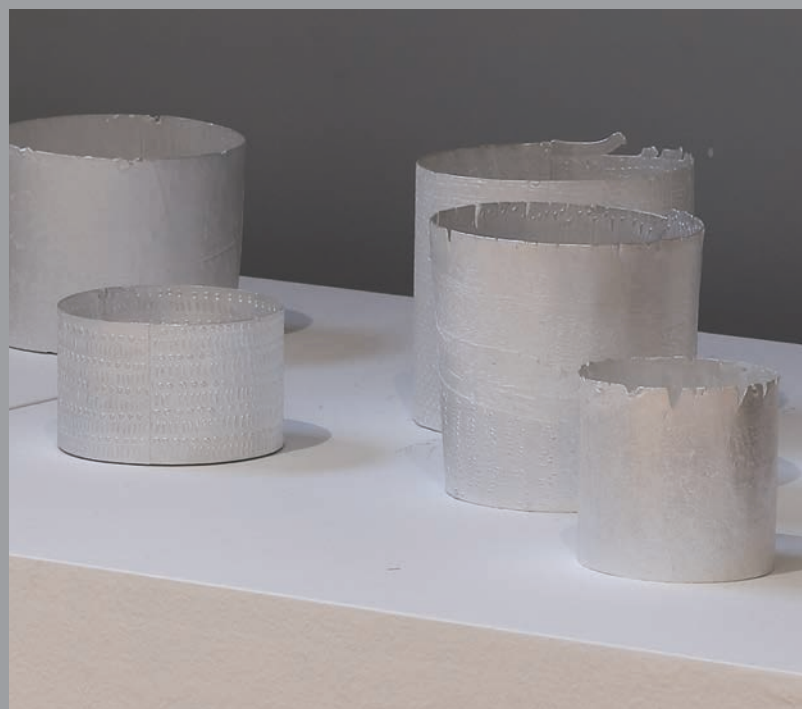
주요 작품 소장

-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영국
-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네덜란드
- Amis des Musees de Riom, 프랑스
- Pacific Northwest College of Art(구 Museum of Contemporary Craft), 미국
- The Cominelli Foundation's Permanent Contemporary Jewellery Collection, 이탈리아
- 스위스 국립박물관(The Alice and Louis Koch Collection), 스위스
- The Heidi and Karl Bollmann Collection, 오스트리아
- The Center for Art in Wood(Helen Williams Drutt Collection), 미국
- The Gallery of Art in Legnica, 폴란드
- 유리지공예관, 서울
- 푸른문화재단, 서울
-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The Robbe & Berking Award went to the Korean Sungho Cho, Seoul. His works captivate through their innovative use of the lost-wax technique.

Individually designed decorative wax strips are cast into sheets and subsequently included in his vessels' design.

- Silver Triennial International 2019. 19th worldwide competition (<https://www.goldschmiedehaus.com>)



2021 DFA,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R
2013 Diplom / Meisterschüler,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München, Munich, DE
2008 Diplom, Alchimia School of Contemporary Jewellery, Florence, IT
2005 MFA,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R
2000 BFA,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R

SOLO EXHIBITIONS

2021 Transition of Traces II, Gallery Wannmul, Seoul, KR
2019 Transition of Traces, LKATE Gallery, Seoul, KR
2019 A Human, a Monkey, an Alien, Atta Gallery, Bangkok, TH
2018 New Beads, Galerie Rob Koudijs, Amsterdam, NL
2017 Chronic Spy, Sueño339, Seoul, KR
2015 Humanity in the Age of Credit, Galerie Rob Koudijs, Amsterdam, NL
2014 Ring – A Sign Language, Gallery Vogoze, Seoul, KR
2013 Forest of Life, Gallery Ahwon, Seoul, KR
2013 Abstract Portraits, Galerie Rob Koudijs, Amsterdam, NL
2010 Samsara, Gallery Hidden Space, Seoul, KR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Schmuck 2021, Klmit02.net
2020 100 Brooches-Korean Contemporary Jewelry Chronicle, Sueño339, Seoul, KR
2020 Poise in Objects, Yoolizzy Craft Museum, KR
2020 From Collective, Gallery Meme, Seoul, Korea
2020 Schmuck 2020, Internationale Handwerksmesse, Munich, DE
2019 Substantific, LA Joaillerie par Mazlo Gallery, Paris, FR
2019 Schmuck 2019, Internationale Handwerksmesse, Munich, DE
2018 Korean Crafts_The Art of Workmanship, Gangneung Olympic Park Livesite, 2018 Pyeogchang Winter Olympic Games, Gangneung, KR
2017 Plastic Plastic Plastic-Recycled Plastic Jewelry, Kimhyunjoo Gallery, Seoul, KR
2017 Mimool, Goldfingers, Copenhagen, DK
2016 Les_Confluence_Ramon Casas and Contemporary Jewellery, Museo del Modernismo de Barcelona, Barcelona, ES
2016 Open Space, Mind Maps. Positions in Contemporary Jewellery, National museum Design at Kulturhuset Stadsteatern, Stockholm, SE
2015 Korea now in Paris-Contemporary Korean Crafts Exhibition 2015, The Decorative Arts Museum in Paris, Paris, FR
2015 Schmuck 1970-2015 Sammlung Bollmann Collection, MAK-Austrian Museum of Applied Arts Contemporary Art, Vienna, AT

SELECTED AWARDS

2021 Loewe Craft Prize 2020, Paris, FR
2021 Schmuck 2021, Klmit02.net
2020 Schmuck 2020, Munich, DE
2019 The Robbe & Berking Award, 19th Silver Triennial International 2019, Hanau, DE
2019 Schmuck 2019, Munich, DE
2018 Schoonhoven Silver Award 2018, Schoonhoven, NL
2018 Mari Funaki Award for Contemporary Jewellery 2018, Melbourne, AU
2014 2nd Award, 23rd Legnica International Jewellery Competition, Legnica, PL
2014 Schmuck 2014, Munich, DE
2013 Metalwork & Jewelry Award 2013, Seoul, KR
2013 Schmuck 2013, Munich, DE
2012 Schmuck 2012, Munich, DE

PUBLIC COLLECTIONS

V&A, UK
The Stedelijk Museum Amsterdam, NL
Amis des Musees de Riom, FR
Pacific Northwest College of Art(Museum of Contemporary Craft), US
The Cominelli Foundation's Permanent Contemporary Jewellery Collection, IT
Swiss National Museum(The Alice and Louis Koch Collection), CH
The Heidi and Karl Bollmann Collection, AT
The Center for Art in Wood(Helen Williams Drutt Collection), US
The Gallery of Art in Legnica, PL
Yoolizzy Craft Museum, KR
Pureun Cultural Foundation, KR
Seoul Museum of Craft Art, KR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KR



transition of traces

흔적의 전이 | 조성호

Solo Exhibition SUNGHO CHO

2019. 12. 05^{THU} - 21^{SAT} LKATΞ GALLERY

2021. 02. 16^{TUE} - 26^{FRI} gallery WANNMUL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 Copyright 2021 SungHo Cho.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이 책의 모든 작품 디자인과 사진은 작가와의 협의 없이 사용되거나 복제될 수 없습니다.

Photo. KC Studio, Baufoto, SungHo Cho Editorial design. Dong-Yun Choi